



9월 11일 동국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청소년 교리경시대회 초등부 시험장. 참가학생들이 답을 써 놓게 들고 정답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봄비니동산? 불좌문? 퀴즈로 푸니 재미 두배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동산은 어디인가요?”
“봄비니동산(정답: 봄비니동산)”
“절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지나는 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불좌문(정답: 일주문)”, “몰라요”
“깔깔깔깔”

300여 초등학생들이 화이트보드에 저마다 답을 써 들어올린다. 한 문제 한 문제 풀며 정답을 맞출 때마다 하나 둘 자리를 뜨는 학생들이 늘었다.

“진짜 재미있어요. 8문제만 맞히고 떨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랬나 봐요. TV에서만 보던 걸 제가 직접 하니 너무 신기하기도 하구요.”

김주하(속초교동초 5·속초 신홍사양은 ‘도전! 범종을 울려라’ 50문항 중 8번째에 떨어졌다. 패자부활전으로 겨우 살아났지만 2번째 문제에서 또 떨어지는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김양은 행사가 진행 중인 동국대 체육관을 친구들과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오늘 행사가 마냥 즐거웠다.

초등학생 300여 명이 전국에서 올라왔다. 제2회 초등부 교리경시대회는 지난해와 방식을 달리해 퀴즈 맞추기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행사장의 세트나 진행 방식은 어린이들에게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프로그램 중간 패자부활전, 댄스 공연 등은 재미를 더했다. 응원석에서는 지도교사와 부모님이 함께 응원하면서 분위기를 살렸다.

문제는 중·고등부와 공통된 문제도 많았다. 사전 배포된 200개의 예상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인지 어린 학생들은 중·고등부와 내용, 난이도의 측면에서도 전혀 차이가 없는 문제로 술술 풀었다.

재미난 답은 참가자는 물론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봄비니 동산을 ‘봄비니 동산’으로 일주문을 ‘봄이문, 불좌문’으로 쓰거나 당당하게 ‘몰라요’ 라고 답을 쓰는 등 함께 웃고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한정민 지도교사(서울 옥수동 미타사)는 “미타사에서 2명만 참가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다”며 어린이법회 학생들과 함께 직접 만든 응원문구를 흔들었다. 한 지도법사는 “법회에 억지로 오던 어린이들도 시험준비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교리를 물어보고 법당을 찾았다. 교사들도 학생들과 함께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자연스럽게 교리공부는 물론 기본 예절 및 수행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저학년 중 가장 끝까지 남았던 김태환(파주 통일초 2·상도선원)군은 40문제 이상을 풀었다. 지권인을 설명하는 문제에서 안타깝게 떨어진 김태환군은 형, 누나들보다 답을 쓰는 속도가 느려 애를 먹기도 했다. 김태환군은 “아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될 때마다 같이 공부해줬어요. 안타까운데 다음에 또 도전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김태환군의 어머니 조민경씨는 “어른들도 재밌다. 아들이 이곳에서 만난 어린이들과 친구로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도선원 일상 스님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스님들은 불자들이 이해하고, 불자들은 가족이 함께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행사가 고학년 위주로 이뤄지는 것 같아 아쉽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고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가 이뤄지면 더욱 좋을 것 같다”며 행사의 발전을 기대했다.

이날 5~6학년 형 누나를 제치고 ‘결구부좌’ 문제를 맞춰 범종을 울린 안현준(명신초 3·서울 청룡사)은 수상소감에서 “마지막 문제는 찍었는데 주지스님이 결구부좌를 가르쳐줬던 것이 생각났다. 얼떨떨했다”며 마지막까지 침착한 모습이었다.

정통사 주지 정병 스님은 “안국은 일곱살 때부터 청룡사 유치원을 다니면서 늘 어린이 불교 서적을 읽고 수행하는 남다른 어린이였

다. 작년에는 들어서 성도제일에 3일 동안 매일 3시간씩 결과부좌를 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웃기도 했었다”며 누구보다 행복해 했다.

이날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지승)이 주최하는 제2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가 9월 11일 전국 8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끝난 행식으로 처음 치러진 초등부 경시대회는 어린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물론 수행활동의 뚜렷한 동기부여, 어린이 법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나와 여느 시험과 똑같이 서로 작성한 답안을 확인했다. 각 사찰 청소년법회 지도 법사 스님이나 교사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재확인하면서 답을 써 내지 못한 안타까운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제1회 교리경시대회에 참가했던 재능봉사생들도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제도전환 것이다.

시험을 마친 34명의 학생들은 안양 한마음선원 중고등학생 법회 지도법사인 혜모 스님과 동국대 법전관 앞에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눴다.

학생들은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스님에게 설명하자 스님은 “잘 했다”며 격려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안심과 자신감을 얻으면서 문제를 곱씹었다.

혜모 스님은 방학동안 학생들과 틈틈이 문제를 뽑고 함께 생각하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혜모 스님은 “학생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전국 청소년교리경시대회

“어린이법회에 활력” “학생·스님 모두에 영향”

들이 스스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는데 경시대회 참가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법회에 참석하고 공부하는 모습이 좋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뽀뿌이 흠이던 불교 상식을 정리하는 기회는 물론 불교적인 사고 함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스님도 의무적으로 법회를 진행하게 됐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불교공부를 접하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등부 우수상을 수상한 최소연(성포교 1, 한마음선원) 학생은 초등부 우수상을 노렸다. 최소연 학생은 “지나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청소년 불교입문>을 10번 정도 읽었는데 초등부 시험 문제와는 달리 초등부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았다”며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불교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며 매년 시험에 응시할 뜻도 밝혔다.

구동규(과천교 2·한마음선원)군은 1학년 때 시험을 봤었다. 구동규군은 “주관식에 나온 ‘범종명 차명’은 평소에도 많이 듣고 좋아했던 내용들이어서 쉬웠는데 객관식은 1학년 때 시험보다는 약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 참가자는 제1회 대회 응시자 1913명에 비해 다소 늘어났다. 초등부는 1345명 지원자 중 972명, 초등부는 1293명 지원자 중 1293명이 응시했다. 초등부는 전국에서 320여 명이 ‘범종을 울려라’에 참가하면서 이날 행사에는 2200여 명이 참가했다.

시험장은 서울 동국대, 부산 금정중, 대구 능인중, 대전 보문중, 광주 정광고, 평택 청담정보통신고, 전주 동대부속 금산고, 남양주 광동고 등 8곳 설치됐다. 중·고등부는 오전 11시부터 전국 각 시험장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초등부는 서울 동국대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시상식은 10월 23일 제1회 군중병불교교리경시대회 수상자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글=이상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시험 출제경향

제2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문제 출제는 제1회 경시대회와 비슷했다. 조계종출판사에서 펴낸 <청소년 불교입문>과 <부처님의 생애>, 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 내용에서 불교 수행에 대한 이해를 유도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됐다.

출제 문항은 초·중·고등학교 공통 50문항, 집중도와 학습수준을 고려해 초등부는 오지선다형 35문제, 단답형 주관식 9문제, 서술형 1문제로 45문항이, 중등부는 오지선다형 30문제, 단답형 주관식 9문제, 서술형 1문제로 40문항이 출제됐다.

특히 서술형 문제는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중등부는 전도선언(傳道宣言), 초등부는 부처님 열반 당시 아난존자에게 설한 법등명자등명(法燈明自燃明)을 통한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또 기본 교제 외에 행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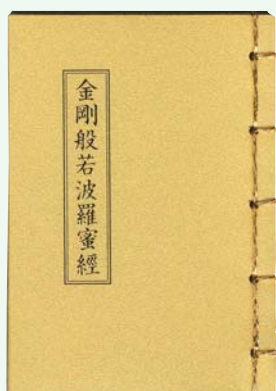
을 보고 법정 스님을 답으로 쓰는 문제가 출제돼 눈길을 끌었다.

출제위원장 법인 스님은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통한 청소년의 불교적 가치 함양에 초점을 맞췄다”며 “학생들의 세계관과 수행관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제위원장 박경준 교수(동국대)는 “실생활 속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푸는 과정에서 재미와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문제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등부 시험문제 같은 경우는 단답형 답안에 기초한 단순암기기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건조한 문제와 답안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불교에 대한 일반 상식과 학문적 내용에 따라 정답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열가전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순금정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상불소영가
장의량장천
의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래이 지형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96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안을 마음과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행하여 나와 예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불이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김환형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칙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르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칙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얹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수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차분 ◆오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에게는 3~4일 먼저 선체열 후 구아머부를 결정하십시오.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질 후 증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복대 의료기기인증, 의료용전자개발기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성인증, 시야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온열복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됨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온열복대를 치유함에 있어 썩됨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흥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됨(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칙외선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흥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양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053-12-125418 김환형 / 일일입금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